

# 함평군가족센터·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성료

영암군,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함평군(군수 이상익)과 함평군가족센터(센터장 김기영)는 2023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뿜아가는\_애(愛) 담 한마당'을 주제로 최근 함평군문화체육센터에서 500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4년 만에 열리게 돼 함평군 다문화가족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센터프로그램으로 갖고 닦은 발레 댄스와 다문화 전통의상 퍼레이드 공연으로 포문을 열고, 가족센터 프로그램 성과를 영상으로 보고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에 공헌한 사회봉사상에 함평경찰서 류0길, 대동면 신0화, 우수 직원상 강0희 방문지도사에 함평군수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날 축사에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과 자녀들이 엄마나라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함평군변형회(회장 오민수), 함평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산진), 함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광우), 코스모스회(회장 김순자), 함평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숙란), 함평군자활센터(센터장 오철수) 외에도 많은 단체에서 후원해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지원자가 됐다.

어울림 한마당은 체육활동으로 부모와 자녀, 조부모 모두가 참여해 청백 팀대결로 응원전과 함께 4년만의 한자리에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함평군가족센터 관계자는 "12회째 열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발전시켜 다문화가족과 함평군민이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가족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문수 기자



함평군(군수 이상익)과 함평군가족센터(센터장 김기영)는 2023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뿜아가는\_애(愛) 담 한마당'을 주제로 최근 함평군문화체육센터에서 500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까지 영암군은 사회복지시설 49개소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했다. 올해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영암군은 총 16개 사회복지시설을 보급지로 선정했고, 탱크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서면 4, 덕진면 2개소이고, 서호면·금정면은 각 3개소, 영암읍·신북면·도포면·학산면은 각 1개소이다.

총사업비 1억6천만 원의 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가스판매협회중앙회의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배관, 보일러 등을 시공한다. 사업비의 80%는 국비에서, 영암군과 희망충전기금이 각각 10%씩 지원한다.

영암군은 한국에너지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에 나선다. /김기철 기자

## 강진군-한우협회 발전방안 간담회

강진군이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 착한한우 명품관에서 강진군 한우협회와 한우산업 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강진 한우산업 새로운 도약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한우인의 소득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윤순성 강진군 한우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한우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거세우 계획 출하, 저능력 암소 선제적 도태, 송아지 번식에 신중을 기하는 등 한우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과 한우협회는 훌륭한 유전자원을 갖춘 우량암소가 낳은 우량송아지를 가능한 관

내에서 사육 및 거래하고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으로 확대해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육용 암소 시장을 육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강진원 군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진 한우 전군브랜드 육성을 위해 애쓰는 한우협회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과 함께 한우산업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핵심 동력이 돼 달라"고 말했다.

윤순성 강진군 한우협회장은 한우인들의 소통과 화합 단결을 강조하며 "한우협회가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각종 수급불안 상황에 대비해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1등급 출현율 향상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024년 한우산업 신규 정책을 발굴중이다. /박종욱 기자

## 신안, 월 1만 원 임대주택 성황리에 마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촌지역에 귀촌하는 자녀(미성년)가 있는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와 도시민들에게 월 1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의 임대주택 신청 접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 모집에 자녀(미성년)가 있는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 귀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2: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안군은 이달 초에 최종입주자 선정을 마무리했고, 동·호수는 입주자 공개 추첨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18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자들은 입주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신안군민으로 살아가게 되며, 입주 기간은 2

년이며 1회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임대주택 모집 결과 청년층 지원자가 많아 젊은 층에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인다"라며, "신안군은 이번에 귀촌하는 청년층에 어선임대사업 및 개체굴지원사업 등 친환경 고소득 전락사업을 집중 육성 지원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신안, 살고 싶은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근 기자

무안, 2023년 전남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 구직자 모집

무안군(군수 김산)은 22일 14시부터 17시까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개최 예정인 '2023년 전남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한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전남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전라남도, 무안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을 비롯해 목포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지사 등도 함께 참여해 기업체-구직자 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와 취업 기회 확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무안, 영암, 장흥, 강진, 해남, 영광에 소재한 다양한 분야의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 /고민재 기자

## 목포시,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목포시는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1천593건 127억여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목포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광주은행),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

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재원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태 기자

